

무안군 지역농산물로 즐기는 '팜파티' 성황

생산자·소비자 즐거운 만남
버섯농장서 140여명 참석
농산물직거래 장터도 열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된 '팜파티'(Farm Party)가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환경면 접영농장에서 열린 '참숯고 팜파티'가 도시 소비자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버섯농장 접영농장에서 생산한 참숯고 표고버섯(백화고)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감사파티 형식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시 소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표고버섯 농장을 견학하고 직접 수확하면서 표고버섯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가자와 함께 표고버섯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전통판소리 국악 공연과 지역



최근 참영농장에서 열린 팜파티 참가자들이 표고버섯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식사를 준비하는 '건강한 밥상(농가뷔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날 팜파티와 함께 팜 프리마켓(농산물직거래장터)도 열렸다.

참영농장과 강소농(작은 규모 농업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체 간 협력으로 극복한 농업 경영체)교육생들이 준비한 팜 프리마켓에서는 양파와 유기농 고구마, 표고버섯, 잡곡 등 다양한 농산물과 고구마·아로니아·연잎 마카롱, 고구마 순장아찌, 표고장아찌, 요거트, 치즈 등 가

? 팜파티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문화와 농촌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농촌마케팅 모델이다.

공품들이 거래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직접 버섯을 채취하고 요리하는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농촌의 여유와 문화도 즐기고 질 좋고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 할 수 있는 팜파티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팜파티는 소비자가 농촌의 문화체험과 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속적으로 개최해 무안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9월 13일~19일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제18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오는 9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영광군은 지난 9일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2018 문화관광 육성축제 및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 전국 최대 상사화군락지인 불갑산 일대가 붉게 물들어 붉은 웅덩이를 깔아놓은 듯한 장관이 연출되

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차별화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함평군 엑스포공원 이달까지 유료 운영

"나비대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엑스포공원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함평군이 나비축제 여운이 남아있는 엑스포공원을 오는 31일까지 유료로 운영한다.

축제가 끝났지만 싱싱한 봄꽃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 각종 나비도 화려한 군무를 펼치고 있는 만큼 자연생태관과 대룡정 전망, 함평 천지 문화유물전시관 등 각종 전시관은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유료 개방하는 만큼 나비축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볼거리도 생겼다.

야외 중앙광장에 있던 주무대 대신 그

자리에 '드림플라워'란 전시물이 새롭게 설치되고 주변 숲에 포토존과 각종 초화류 화단도 새 단장을 했다.

240여 종의 선인장이 있던 다육식물 관에는 사막 자동차길과 오아시스를 조성해 색다른 느낌을 연출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비축제를 보지 못한 가족에게는 이번 개방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꽃과 나비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축제 때보다는 저렴한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3500원, 어린이·만 6세 이상 어르신 2500원, 유치원생 1500원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함평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함평경찰서는 최근 함평을 엑스포공원 일원 함평 나비축제 행사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사진)'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에 나선 함평경찰 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어깨띠를 착용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물(홍자손과 황사 마스크)과 예방전단지 등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배포하면서 구체적인 금융

사기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함평경찰은 영농철을 맞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해 군민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규열 함평경찰서장은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군 남악신도시 도로 정비 포트홀 보수 등 10억 6000만원 투입

무안군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일체 정비에 착수했다.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남악신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도로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도로포장과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 도

로 일체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화된 노면과 포트홀을 운전자에게 불편함과 사고위험이 있는 남악신도시 후광대로(10차로, 길이=1.3km)의 공사를 5월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남악4로와 남악5로, 단독주택 15·16블록의 주요노선에 대해서 노후되고 퇴색돼 기능이 저하된 차선 10.8km를 이달

말까지 깨끗하게 정비해 예산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상원 무안군 도로관리담당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정비계획과 정비를 통해 무안군을 찾는 방문객과 도로이용자에게 생활편의 도모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신안 '갯벌에여문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민관 철저한 품질관리 결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신안 갯벌 토양에서 나온 북신안농협의 '갯벌에여문쌀'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처음으로 선정됐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은 각 시군의 대표쌀 추천을 받아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의 발맛 평가, 품종 혼입률, 기계품질, 외관상 품위, 잔류농약검사 등 다각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신안군은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을 위해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의 협

의를 거쳐 우량종자 공급과 육묘, 이앙, 제초, 수확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철저한 영농지도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이번 결실을 맺었다.

특히 품종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쌀 단지 전용 이앙기와 콤바인을 지원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 효과를 봤다.

유재석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갯벌에여문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보다 치밀한 품질관리와 홍보·판매를 강화해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노지채소 스마트팜' 무안군 대상지역 선정 장비 구축 국고 확보

무안군이 최근 혁신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노지채소(양파)에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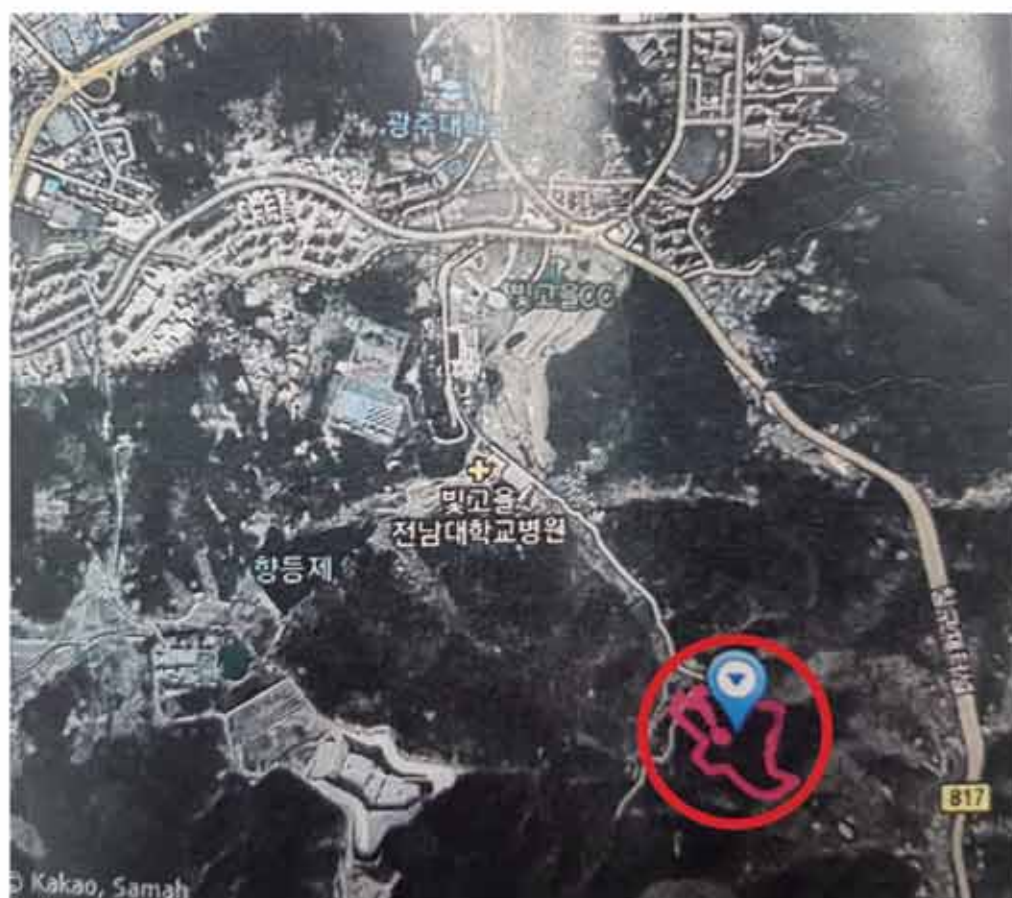
무안군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해제면 일원 7개 권역 10농가를 대상으로 첨단 ICT 장비를 지원하는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농가에는 센서·제배·영상·제어장비 등 노지채소(양파) 스마트팜 구축에 필요한 ICT장비를 10ha 면적에 총 2억원을 100%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는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로 포전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